

광주FC, 시즌 목표 이뤘다

K리그1 38R 수원에 1-0 승

15승으로 시즌 7위 마감

결승골 헤이스 '시즌 10호'



광주FC가 15승 목표를 이루며 2025시즌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광주FC가 3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8라운드 원정경기에서 후반 4분 터진 헤이스의 골을

지키면서 1-0 승리를 거뒀다.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를 거둔 광주는 15승 9무 14패(승점 54)를 기록, 파이널B 그룹 가장 높은 순위인 7위에서 2025시즌을 마감했다.

15승은 올 시즌 이정효 감독과 선수단이 우선 목표로 내세웠던 승수다.

12월 6일 전북현대와의 코리아컵 결승에 앞서 로테이션을 가동한 광주는 골키퍼 노희동의 맹활약 속 승리를 완성했다.

이날 수원FC는 승강플레이오프를 피하고 잔류를 확정하기 위해 윌리안을 앞세워 초반부터 매서운 공세를 펼쳤다.

전반 6분 윌리안의 슈팅이 골대를 맞고 흐르면서 광주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전반 9분 이어진 광주 공격에서 권성운이 오른쪽 측면을 파고든 뒤 슈팅까지 시도했지만 골대를 가리지 못했다.

이후 수원FC의 공세가 이어졌다.

전반 13분 싸박의 원발 슈팅이 나왔지만 골키퍼 노희동이 골을 품에 안았다. 전반 20분에는 루안이 문전에서 공을 왼쪽으로 흘려줬고, 싸박의 슈팅으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지나쳤다.

6분 뒤에는 루안이 올린 크로스를 받은 윌리안의 헤더가 골대 위로 뛴다.

전반 40분 광주가 아쉽게 선제골을 놓쳤다.

수원FC 골키퍼 안준수의 킥 실수가 나왔고, 박인혁이 문전에서 슬라이딩을 하면서 슈팅까지 연결했지만 상대 수비수 이현용이 골대 앞에서 발로 공을 막았다. 이어진 코너킥 상황에서는 안혁주가 흐른 공을 잡아 발리 슈팅을 시도했지만 이번에도 이현용의 발에 걸렸다.

광주는 후반 시작과 함께 안혁주를 대신해 헤이스를 투입하면서 변화를 줬다. 교체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4분 광주 진영에서 길게 공이 올라왔고, 박인혁이 뛰어올라 볼 경합을 했다. 그리고 박인혁을 지나 왼쪽에 떨어진 공을 잡은 헤이스가 문전으로 질주한 뒤 오른발로 시원하게 골망을 흔들었다. 헤이스의 시즌 10호골.

승리가 필요했던 수원은 공격적으로 광주 골대를 두드렸고, 노희동의 활약이 눈부셨다.

후반 7분 루안의 원발 슈팅을 품에 안은 노희동은 후반 12분에는 싸박의 위력적인 헤더를 몸을 날려 쳐냈다.

후반 21분에는 과감한 편칭으로 상대 공격 흐름을 끊었다.

수원FC 윌리안이 후반 25분 골대를 갈랐지만 부



광주FC의 헤이스가 30일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수원FC와의 K리그1 최종전에서 슈팅을 한 뒤 골대를 지켜보고 있다. 헤이스는 후반 4분 골을 넣으면서 시즌 10호골을 장식했다.

〈광주FC 제공〉

심의 깃발이 올라갔다.

노희동은 후반 43분에는 싸박의 벼락같은 슈팅을 몸을 날려 저지하는 등 17골을 장식한 '득점 1위'를 완벽하게 봉쇄했다.

후반 추가 시간 수원FC가 웃다가 울었다. 이준석의 슈팅이 골대 맞고 나왔고, 흐른 공을 잡은 윌리안이 오른발로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비디오판독 결과 윌리안의 오프사이드가 선언됐다.

18개의 슈팅을 날린 수원FC는 10개의 유효슈팅도 만들었지만, 노희동의 '선방쇼'에 막혔다.

승점 추가에 실패한 수원FC는 11승 9무 18패(승점 42점)의 전적으로 광주FC, FC안양(승점 49), 울산HD FC(승점 44)에 이어 10위를 기록하면서, '잔류'를 놓고 승강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됐다.

수원FC의 상대는 K리그2 플레이오프에서 생존한 부천FC다.

한편 최종전 결과 대구FC가 최하위 탈출에 실패하면서 10년 만에 2부 리그로 강등됐다.

대구어 이날 대구 iM뱅크파크에서 열린 안양과의 최종전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날 패배로 승점 34를 기록한 대구는 울산을 상대로 1-0 승리를 거둔 제주SK(승점 39)에 밀려 최하위를 확정, 다이렉트 강등 운명을 맞았다.

이와 함께 2016년 승격 이후 1부리그를 지켰던 대구는 내년 시즌 2부리그에서 뛰게 됐다.

'승격팀' 안양은 광주에 이어 8위를 기록하면서 첫 1부 무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2 부천, 승강 PO행 “수원FC 나와”

K리그2 PO서 성남과 0-0 비겨



프로축구 K리그2 부천FC가 성남FC의 도전을 뿌리치고 1부 승격을 향한 마지막 관문인 승강 플레이오프(PO)에 진출했다.

부천은 30일 부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2025 PO에서

성남과 0-0으로 비겼다.

올해 정규리그 3위에 오른 부천은 PO 규정에 따라 정규리그 5위 부천을 따돌리고 승강 PO에 진출했다.

2008년 창단해 2013년 K리그 챌린지(현재 K리그2)를 통해 프로 무대에 첫선을 보인 부천은 13시즌을 2부에서 보낸 끝에 첫 승격의 기회를 잡았다. 부천은 오는 3일 안방에서, 7일에는 수원종합운동장에서 홈 앤드 어웨이로 K리그1 10위 수원FC와 승강 PO를 치른다.

2022년 K리그1 꼴찌로 2부 강등의 굴욕을 맞은 뒤 4년 만의 K리그1 무대 복귀를 벌였던 성남은 부천을 넘지 못하고 발걸음을 멈췄다.

성남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5연승을 따내는 무서

운 뒷심을 발휘하며 준PO행 막차를 뒀고 준PO에서 4위 서울 이랜드를 1-0으로 물리쳐 PO에 올랐다.

부천과 성남은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개로 치열하게 맞섰다.

준PO에서 결승골을 함께 만들어냈던 '헤이스' 후이즈와 신재원이 각각 경고 누적과 부상으로 빠졌음에도 성남은 전반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며 흐름을 주도했다.

성남은 후반 시작과 동시에 류준선을 빼고 이정빈을 투입해 공격에 새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정빈은 교체 투입 9분 만에 김정환의 낮은 크로스를 문전에서 잡아 곧바로 슈팅으로 연결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었지만, 골키퍼 김형근의 선방에 막혔다.

부천은 후반 11분 박창준의 킥백을 받은 장시영이 침착하게 오른발 슈팅으로 골대를 겨냥했지만, 골키퍼 양한빈이 높이 쳐내며 막아냈다.

승리가 절실했던 성남은 끝까지 공격의 속도를 높였지만, 끝내 한 골을 넣지 못했다. 후반 39분, 박상혁이 원발 슈트로 결승골을 노렸으나 공은 오른쪽으로 살짝 빗나갔다. 후반 추가 시간 종료 직전에도 페넨티 지역 오른쪽 모서리 부근에서 프리킥 기회를 만들었으나 수비수의 헤더에 막혀 아쉬움을 삼켜야 했다.

/연합뉴스



김용용 전 감독을 필두로 타이거즈 불패를 이룬 레전드들이 지난 29일 광주 ACC 디자인 호텔에서 '불멸의 타이거즈 레전드 모임'을 가졌다.

불멸의 타이거즈 레전드 모였다

10개 구단 유일 OB 모임…김용용 전 감독 등 참석

“타이거즈 문지자”라는 ‘옛 감독’의 견배사에 회자되듯 흰머리의 제자들이 웃으면서 술잔을 기울였다.

지난 28일 광주 동구 ACC 디자인 호텔 연회장에서 김용용 전 감독과 함께 타이거즈 레전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타이거즈 레전드 상조회 주최로 ‘불멸의 타이거즈 레전드 모임’이 열리면서 왕조를 구축했던 이들이 다시 호흡을 맞췄다.

송유석 회장을 필두로 ‘홍련왕’ 김봉연·김성한, ‘대도 계보’를 이은 김준환·이순철·이종범, ‘타격 교과서’ 김종모, ‘한국시리즈 MVP’ 박철우, ‘우승 포수’ 정희열, ‘아기 호랑이’ 홍현우, ‘에이스 오브 에이스’ 이대진은 물론 양승호 전 롯데 감독, 이상국 전 KBO 총장 등 역사의 순간을 장식했던 50여 명의 타이거즈 레전드가 함께했다.

광주를 대표하는 야구의 주역이 한자리에 모였다는 소식에 강기정 광주시장도 걸음을 했고, 임택 동구청장과 타이거즈 올드팬 김이강 서구청장

도 행사장을 찾아 영웅들을 반겼다.

V12의 역사에 빛나는 타이거즈는 10개 구단 중 유일하게 OB 모임을 갖고 있다. 매년 겨울 이들은 광주에 모여 옛이야기를 나누면서 원팀이 된다.

선배들을 위해 후배들의 축하 공연도 펼쳐졌다.

레전드 막내급인 이대진 한화 2군 감독은 박병의 ‘마지막 인사’를 멋진 댄스와 함께 선보이며 분위기를 띄웠다.

처음 행사장을 찾은 ‘막내’ 광정철 한화 코치는 “TV에서만 보던 레전드 선배님들을 뵙게 돼서 영광이다. 맘이 안 나올 정도로 벅하다. 이 모임에 나올 연륜은 아니지만 자주 나와서 선배님들의 막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인사말과 함께 진성의 ‘안동역에서’를 불러 박수를 받았다.

송유석 회장은 “많이 참석해 주셔서 보람이 있다. 회장을 맡다 보니 책임감도 느낀다. 전통적으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후배들이 편하게 이

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옛날 식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가 현역 때 마음이 되새겨진다”며 “앞서 감독님을 구심점으로 행사를 했는데, 선수단만 모임을 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외부 인사들을 초청해 명예 회원으로 하고, MOU도 체결했다. 회원들 필요한 부분 도와주는 게 우리 역할인 것 같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하나로 뭉쳤던 불멸의 타이거즈의 힘이 있다. 한국시리즈 올라가면 전승을 했고, 후배들이 이어졌다. 그 전통이 계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후배들이 매년 우승할 수는 없지만 전통을 잇기 위해 자주 우승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레전드들이 다시 기억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상조회는 첨단 하운드 호텔, ACC호텔, 상무지구 맑은 피부과, 첨단미르치과, 드메르 예식장, VIP 장례식장과 MOU를 체결했다.김영채 정훈이앤씨 대표, 한태선 부성건설 대표, 심삼식 맑은 피부과 원장은 명예회원으로 행사를 후원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 방으로 부족해’…KIA, 위즈덤과 작별

올 시즌 홈런 35개로 리그 3위

득점권 타율 2할…아쉬움 남겨

KIA 타이거즈가 외국인 타자 패트릭 위즈덤과 작별한다.

KBO가 2026년 보류선수 명단을 30일 공시했다. 올 시즌 KBO가 등록된 선수는 총 579명으로 시즌 중 자유계약선수 및 임의해지, 군보류 선수,

F·A미계약 선수, 보류제의 선수 등 총 29명이 제외돼 568명이 2026년도 보류선수로 공시됐다.

KIA에서는 지난 10월 웨이버 공시를 신청했던 투수 박준표·김승현, 내야수 서건창과 함께 위즈덤이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됐다.

올 시즌 KIA 유니폼을 입고 KBO리그에 도전한 위즈덤은 35차례 담장을 넘기면서 삼성 라이온즈(50개), NC 데이비스(36개)에 이어 홈런 3위에 올랐다.

위즈덤은 메이저리그에서 3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던 파워는 보여줬지만 세밀함이 떨어졌다.

시즌 타율 0.236을 기록한 위즈덤은 득점권에서도 0.207의 타율에 그치면서 85타점에 머물렀다.

보류선수 명단에서 제외된 위즈덤은 다른 KBO리그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다.

한편 KIA는 56명의 선수를 보류선수 명단에 넣었다. 구단 별로는 SSG와 키움에 61명으로 가장 많고, LG·롯데 59명, NC·두산 58명, KIA 56명, 한화·삼성·KT 52명 순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